

# “국민 만족 해양치안 서비스 최선”

**금요 초대석**

**이철우 여수해양경찰서장**

신임 이철우 여수해양경찰서장이 최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제23대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 서장은 장흥 출신으로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01년 간부후보(49기) 공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과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장, 해양경찰청 해상수사정보과 형사계장,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과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 등을 거쳤다. 수사와 정보, 훈련 등 해경의 다양한 업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다.



- 여수해양경찰서장 취임소감과 각오는.  
▲올림픽을 포함해 세계 3대 빅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아름다운 밤바다와 먹거리가 풍부한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인 여수의 해경서장으로 취임하게 돼 기쁘다. 여수는 석유화학단지 등 국가 주요 산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고,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해양도시로 선박 사고 및 해양오염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양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

- 앞으로 치안활동 계획이 있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초동 대응 능력을 높이고, 전남 동부권 해상치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여수석유화학단지와 같은 국가 중요 임해 산업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여수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그리고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지역 어민들이 안전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바다는 육상보다 치안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해양경찰은 해양주권 수호부터 각종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해양과 관련된 있는 범죄의 수사,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 등 해양에 있어서 종합적인 즉 모든

화학단지 밀집지역 고려, 안전관리 철저  
어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토록 보호

것을 관리하는 법 집행기관이다. 특히 관할해역이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지만 충분하지 못한 합정 세력과 인력으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에는 해양자원 및 해양산업 개발, 해양관광과 레저산업 발달 등으로 바다 가치가 높아지면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활동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은.  
▲해양경찰은 정의, 존중, 소통, 공감의 4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적극 행정 확산을 통해 국민 만족 해양치안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침에 따라 가장 먼저, 바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현장 초동대응능력을 향상할 계획이다. 각종 대형사건을 되짚어 볼 때마다 일선 합정과 파출소 등 현장의 신속한 초동 대처가 국민의 안전에 결정되는 승부처임을 매번 깨닫는다.  
이에 전 직원이 신고 접수부터 출동, 현장 조치까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과 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듯하고 정직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법과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업무 전반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소통과 화합은 존중하는 문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솔선수범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난 5일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부처 중 검찰, 경찰청에 이어 5번째로 자체 조직법을 갖게 됐다.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이 66년 만에 조직과 신분 및 직무를 명확히 규정한 법을 갖게 된 것이다.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의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어서 조직 운영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해양경찰법 제정을 통해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게 됐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자기 주도적 근무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직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하며,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된 만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양경찰의 자존감을 높이고 조직 위상을 바로 세워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뜻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 내일부터 여수 문화재 야행 열린다

전라좌수영 설치 9주갑 기념 역사 프로그램 마련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4만 5,000명이 방문해 대성황을 이뤘던 ‘여수 문화재 야행’이 다시 한번 시민과 관광객을 찾아온다.  
여수시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국보 제304호 전남관 일원에서 ‘2019년도 제2차 여수 문화재 야행’이 열린다고 8일 밝혔다.  
여수시는 전라좌수영 설치 9주갑(540년)을 기념해 전라좌수영의 역사성과 시민 화합에 무게를 두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개막 행사는 10일 오후 7시30분 전남관 망해루에서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선언, 역사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EBS 한국사 스타 강사인 최태성씨가 ‘전라좌수영의 역사, 여수문화재 야행으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행사 기간 망해루, 매영정, 고소대 일원에 가변 여수시립예술단과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공연을 만날 수 있다.  
전남관과 여수제일교회 주변에서는 거북선스트링아트, 단청드림캐처, 전남관 색칠하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타루비 인근 야식 부스에 들르면 콩물, 과일화채, 전 옥수수 등으로 출출한 배를 달랠 수도 있다.  
문화재 야행은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여수시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수시와 행사추진위원회는 행사기간 전남관입관유물전시관 내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해 교통·안전 대책 등을 수행한다.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의료반을 가동하고, 방문객 편의를 위해 안내소 3곳을 운영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라좌수영 8년의 기록’을 주제로 다채로운 역사 프로그램을 정성껏 준비했다”며 “일본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이 진행 중인 시점에 이충무공의 호국충절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여수 중앙초 조승민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서 받은 장려금 전달

여수시 중앙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조승민군(12)이 최근 이웃돕기 성금 5만원을 동문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사진> 조군은 지난 1년간 우유팩 2만여개를 모아 최근 여수시에서 주최한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에 입상했다. 평소 이웃돕기에 관심이 많았던 조군은 장려금 5만원을 받자마자 후원을 생각했다고 한다.  
조군은 “우유팩 재활용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보호를 배우게 됐다”며 “시상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수줍게 말했다.  
박보근 동문동장은 “조군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동이 주민들에게 자극제가 되길 바라고 성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 고흥 맞춤 귀농정책 지원금 190억 확보

농업창업·주택구입·신축 등  
도내 최대... 초기 정착 기여

고흥군이 귀농귀촌을 위한 2019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자금으로 농업창업 160억원, 주택구입 신축 30억원 등 총 190억원을 확보했다.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남도에 배정한 자금 815억원중 도내 시군 최대 190억원(23%)을 확보해 귀농귀촌 1만 지로서 이주 도시민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원받은 귀농인은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는 고흥군의 지역맞춤형 귀농정책으로 인구유입이 지속적 증가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고흥의 청정자연환경, 영농기반조건 등 지리적조건과 초기 정착 자금지원 등 행정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어우러진 결과로 내다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의 높은 고령화율을 낮추고 인구구조의 건강화를 위한 청년층 유입, 내 사랑 고흥기금 100억원 조성, 청년유턴 정착 장려금(1,000만원),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1,000만원), 귀농인과 마을주민 소득사업(3,000만원), 귀농귀촌 알리미 행복 SNS단 운영(24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9월부터 운영할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통한 교육, 체험, 숙박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고흥군은 귀농귀촌을 위한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자금 190억원을 확보했다. /고흥군 제공

## 곡성서 래프팅·짚라인으로 피서 즐기세요

곡성군이 섬진강 래프팅과 짚라인을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곡성군 섬진강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여름철 대표 레저스포츠인 래프팅과 짚라인을 체험할 수 있어 도시민들에게 여름철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곡성 청소년 야영장 앞에서 시작해 압록교 아래까지 5km구간으로 이뤄진 섬진강 래프팅 코스에서는 섬진강의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스릴과 모험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래프팅 시작 지점 근처에 있는 짚라인장에서는 외출에 매달려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아찔한 경험도 할 수 있다.  
래프팅과 짚라인을 신나게 즐겼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여유와 힐링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래프팅 하선지인 압록유원지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에는 계곡과 숲길로 유명한 태안사가 있다. 태안사로 향하는 2km 남짓한 비포장 진입로는 양 옆으로 늘어선 나무들이 만든 그늘을 만들고, 그 옆으로는 맑고 시원한 계곡이 흐른다. 여느 계곡처럼 번잡하지 않은 탓에 조용히 망중한 즐기기에 제격이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클릭! 고흥 소식



### 곡성 아동센터 소방안전·응급처치 교육

곡성군은 최근 곡성지역아동센터와 원동지역아동센터에서 3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하이리더법, 교육용 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작동하는 법, 완강기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충분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구례경찰, 집배원 교통사고 예방 교육

구례경찰서는 최근 구례우체국 2층 회의실에서 구례우체국 집배원 25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등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및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관내 4년간 노인 교통사고 현황 및 교통 사망사고 사고요인 분석을 통해 안전도착, 교통법규 준수 및 방어운전의 요령 등 집배원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에 중점을 뒀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 순천대 로켓발사대회 대상

순천대학교로켓연구팀이 최근 항공우주 공대 등 전국 21개 대학, 400여 명의 학생 주연원인 고흥 항공센터에서 진행된 제 28회 전국대학교 로켓 발사대회에서 고체로켓부문 1위,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순천대, 서울대, 고려대, 한